

프랑스 문학과 철학의 산실... 느긋함 자체로 하나의 풍경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

(9)
파리와 카페



매주 일요일 오전에 철학 토론이 열리는 바스티유 광장의 카페 데 파르.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파리에서 영업 중인 가장 오래된 카페 르 프로코프. 1686년에 개장해 30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쿠르 형제와 보들레르 등이 즐겨 찾던 오페라 인근 리쉬 카페. 지금은 해물 전문 식당으로 바뀌었다.

파리의 명물은 에펠탑이나 개선문과 같은 거대한 기념물만이 아니다. 도심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카페의 테라스와 거기 앉아서 커피를 즐기며 수다를 떠는 파리인들의 모습 자체가, 이곳이 파리임을 말해준다.

불어 '카페(cafe)'는 커피라는 뜻과 함께 커피숍의 의미도 지닌다. 각 나라마다 커피를 부르는 단어는 다르다 하더라도, 장소의 의미를 지닌 '카페'는 거의 만국 공통어다. 카페라는 공간이 처음으로 선보인 곳이 프랑스가 아니고, 커피의 원산지인 리비아는 더더욱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카페가 특별한 것은 3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파리의 카페를 거쳐간 이들이 이들이 남긴 수많은 일들 때문일 것이다.

조금 과장하자면,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된 계몽사상이 꿈틀거린 곳도, 대혁명의 불씨가 담겨진 곳도 파리의 카페였고, 현대인의 책장을 채우고 있는 술한 고전들이 탄생한 곳도 파리의 카페였다.

여명기

1686년 사상이자지트 '르 프로코프' 첫 문
볼테르·루소·제퍼슨등 담론... 지금도 영업

프랑스에 커피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640년대였다.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4세가 보낸 대사는 루이 14세에게 커피를 진상했다. 터키 하인들이 고급스러운 일본 자기에 담아 바치는 커피는 상류층 부인들 사이에 새로운 유행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커피는 일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로부터 30년쯤 후에 파리 시내 생-제르맹 구역에 대중들을 위한 카페가 선을 보였다. 주로 콘스탄티노플 출신 터키인이나, 주변국 사람들이 카페를 운영했는데 성공을 거둔 카페가 나온 것은 그 후로도 10년쯤 더 흐른 1686년이었다.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는 커피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이탈리아 출신이 문을 연 '르 프로코프'는 커피 외에 사베트 아이스크림, 음료수, 다과류 등을 함께 팔았다. 그날의 뉴스를 봐서 기이한 것은 분명 전에 없던 콘셉트였다.

놀랍게도 이 카페는 현재까지 영업 중, 아니 상업 중이다. 르 프로코프를 거쳐간 손님들은 볼테르, 루소, 디드로,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등이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아지트였다. 루소는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 카페 사랑에 대한 글을 남겼다. 그는 "볼테르는

폭군과 싸우듯 치열하게 사고하려고 항상 깨어 있기 위해 하루 40잔의 커피를 마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썼다. 디드로는 르 프로코프에서 백과사전을 저술했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독립을 위해 루이 16세와 맺은 파리조약 협정문의 기초를 이곳에서 다졌다.

르 프로코프에는 계몽주의자들 외에도 위고, 발자크 등 파리에 살았던 수많은 작가들이 거처했다. 현대의 르 프로코프는 흔히 떠올리는 길거리의 카페라기보다 고급 레스토랑을 연상시킨다. 어쨌든 파리에서 영업 중인 가장 오래된 카페라는 이름 값만으로도 걷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절정기

18C 후반 3천곳으로...대혁명 거사 논의

이후 베를렌스·랭보 등 예술가들에 자리

계몽주의 사상가 선배들이 그랬듯 글 깨나 쓰고, 말 깨나 한다는 인사들은 혁명의 언저리에도 여전히 파리의 카페를 드나들었다. 18세기 후반 파리의 카페 수는 3천개를 헤아렸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하루 앞둔 1789년 7월13일 혁명가 데몰랭은 루브르 궁 근처의 카페 드 푸아의 탁자 위에 비장한 각오로 올라섰다. 한 손에 장도를, 다른 한 손에 권총을 쥐고 그곳에 모인 부르주아지 친구들에게 무기를 들어 혁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뜻을 함께 하는 이들에게 나뭇잎을 나눠주고 거사의 비표로 삼았다.

대혁명을 다룬 빅토르 위고의 마지막 소설 '93년'에는 한 카페에서의 은밀한 모임이 묘사돼 있다. 1792년 국민공회는 국외로 도주하려다 잡힌 왕의 처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당풍과 마라, 로베스피에르는 결국 뜻을 모았고, 두 달 후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극심한 혼란기를 지난 파리의 카페들은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베를렌스, 랭보, 말라르메 등은 생 제르맹 데프레 구역의 카페 드 플로르에 드나들었다. '파리의 시인' 보들레르의 카페 사랑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당시 유행처럼 퍼지던 댄디즘의 기본이 카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카페 드 플로르와 그 옆에 나란히 위치한 레 드 마그에는 앙드레 브르통과 그의 초현실주의자 친구들이 드나들었는데, 다다이즘의 탄생지가 서로 자기네라고 주장하는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은밀하

고도 진중한 카페의 역할은 혁명이 한 세기도 넘게 지난 제2차 세계 대전 때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지식인들에 의해 재연된다.

사르트르는 연인 보부아르와 그야말로 하루 종일 생 제르맹 데프레의 카페에서 살았다. 사르트르는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글을 쓰고, 점심 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 저녁을 먹은 뒤에는 우리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맞는다.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집, 르 플로르에 있다"고 썼다.

쇠퇴기

실내 금연·브랜드 커피 대세 '쇠락의 길'

20만곳이던 카페 3만7천여곳 남아 명맥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문을 닫은 카페 수가 2천 곳에 달한다고 한다. 1960년 20만 곳이던 카페가 2010년 현재 3만6천900곳에 불과하다. 수치가 약 50년 동안 5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2008년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카페로 향하는 파리인들의 발걸음이 더욱 줄었다.

카페에 한가롭게 앉아 고담준문을 나누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일 지도 모른다. 역설적인 것은 미국식 소비문화를 대변하는 스타벅스 체인점들은 파리 시내 곳곳에서 개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옛 영화를 누리던 파리의 카페들은 몇 십년 전부터 문학상 등을 정해 작가들에게 시상하면서 도도함을 가까스로 지탱하는 듯하지만 이마저도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 계몽주의 사상가와 혁명가, 작가들의 자리는 관광객이나 산책자들에게 내준 지 오래고, 몇몇 카페들이 매주 철학 강의 및 토론을 열어 지적 공간으로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이태리가구 40% OFF SALE

NAVER **홍스페이스** 신상품 소파 입고! www.hong79.com (홍친구닷컴)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00평** ☎1899-0240 **2012 결산 빅세일 10월25일까지**